

工業化過程의 社會에 있어서의 傳統과 合理性

金 晋 均

<目 次>

- I. 序
- II. 傳 統
- III. 機能主義的 模型
- IV. 產業主義

I. 序

社會變動은 명백히 財貨生産方法의 變動以上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經濟變動에 一次的 關心을 두는 것은, 近來 몇세기동안에 技術의 發展이 巨大한 總生産量을 急激히 增大시켜 오고 技術이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뿐만 아니라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도 規定해온 範圍가 擴大되어 온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個人的 福祉나 社會組織의 改善에 어떤 種類의 經費가 所要된다는 經濟의 道具의 性格에 基因하는 것이다. 社會의 經濟的 產出이 增大됨으로써 改善에의 可能性이 創出되고 促進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目的이 다른 社會的 目的보다도 優先權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技術(Technology)의 變動이 技術 자체의 本來的인 性質에서나 또는 人間의 目的과 希望과는 관련없이 獨自인 것으로 說明되지 않으면서도, 經濟組織과 그와 관련된 技術을 社會變動의 原初的 推進體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直面한 事態 즉 道具의 性格을 가진 經濟·技術 자체가 뒤지고 있다는데 있다. 生産體系의 後進性을 自覺함으로써, 비록 經濟·技術決定論이 經驗的 妥當性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不拘하고, 後進國으로 하여금 經濟的 近代化에 비상한 努力을 쏟게 하고, 연관된 社會構造的 要素와의 漸進的 變動에 대하여 期待를 늦추면서 經濟變動을 더욱 注目하는 것이다. 그리고 確實히, 社會變動에 있어서 經濟的 優位性을 두는 概念은 經濟發展의 目的을 크게 問題삼지 않을 때는 經濟發展과 同行하는 社會變動을 社會的 諸結果의 連鎖過程에서 표현되는 經濟的 道具的 價値側面에서 分析하는 데는 有用하다.

한편, A. Pepelasis가 “經濟活動에 대한 社會文化的 要因의 效果는 體系的인 그리고 數

量的인 正確性을 갖고서 檢討될 수 없다. … 不幸하게도 經濟史家들은 經濟變動에 대한 多樣的인 非經濟的 障害 또는 促進에 대하여 加重值를 配當할 수 있는 적절한 道具(Technique)를 아직 考案하지 못하고 있다”고⁽¹⁾ 말할 때에, 經濟發展과 社會構造的 要素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兩者의 因果關係나 相互作用의 어느 側面을 취급하더라도 意見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그 분분한 意見을 두가지로 묶어 보면, 하나는, 傳統이 經濟發展(내지 技術發展)을 阻害한다는 意見이다. 즉 近來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近代化 내지 工業化 問題에 있어서 工業社會 내지 近代社會로 移行하자면 傳統的 行爲의 段階를 通過하여 諸目的이나 手段간에 情誼的 行爲로부터 合理的 行爲로 必然적으로 轉移해야 한다고 假定한다. 따라서 技術·經濟的 先進社會와 後進社會를 區分하는데는 合理性(Rationality)과 傳統(Tradition)을 그 基準的 指標로 삼고서, 經濟發展을 願한다면 傳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發展論의 立場에서, 合理性이 技術·經濟發展에 良機能化할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傳統도 工業化를 통한 經濟發展에 良機能을 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意見이다. B. F. Hoselitz는 다음과 같은 質問을 제기한바 있다. 즉 모든 傳統은 經濟發展에 同一하게 抵制작용만 하는 것인가? 가령, 傳統이 安定性이나 停滯性을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廣範하게 社會的 分解를 수반하고 있는 急變的인 經濟發展過程에서 傳統의 有用性이 發見될 수 없는가? 그리고 合理的 行爲 자체는 傳統으로 되지 않는 것인가?⁽²⁾ 前者는 傳統에 대한 概念規定이 明確하지 않았다는 것과 近代化(물론 經濟發展 및 工業化가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이지만)에 대하여 너무 機能主義的 立場에 立脚하였다는 데에서 나온 意見이다. 後者는, 물론 Hoselitz가 機能主義的 立場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戰後의 새로운 事態 즉 技術·經濟的 後進國이 西歐的 發展模型을 經濟發展에 適用코자 하였으나 社會構造的 要素에 依하여 번번히 實效를 얻지 못하고 있는 事態에 當面하여 反省한데서 나온 意見이다. 이것은 機能主義的 立場을 떠나서 經濟發展과 社會構造的 要因의 關係를 相互作用하는 時間과 힘과 過程을 치밀하게 分析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經濟發展은 經濟的 側面에서 狹意로 보면 1人當 實質所得의 成長을 意味한다. 經濟에 合理的 生産技術(Rational productive techniques)을 適用한다는 意味를 포함시키면 곧 經濟

(1) A. Pepelasis, L. Mears, and I. Adelman, *Economic Development; Analysis and Case Studies*, Harper & Row, 1961, p. 161.

(2) B. F. Hoselitz, "Tradition and Economic Growth", R. Braibanti and J. J. Spengler eds., *Tradition, Valu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1961, p. 84.

發展은 工業化와 同一한 意味가 된다. 廣意로 보면, 概念的 問題가 다시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한 合理的 生産技術作用의 條件이나 結果로 보는 것이 妥當한 여러 變數들이 經濟發展이라는 主變數에 同化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諸構造的 變數가 순전히 從屬變數로서, 經濟變動에 主導的 또는 遲滯的인 獨自的 變異性을 갖지 않거나, 社會的 行爲의 諸分野에서 戰略的 問題를 許容하지 않는다면, 經濟發展은 그대로 核心的 要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構造的 變數가 獨自的으로 變異해온 事實들은 실로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筆者는 發展論的 立場에서⁽³⁾ 經濟發展과 社會構造的 要素와의 關係를 보는데 있어서, 우선 經濟發展 즉 1人當 實質所得을 增大시키는데 有用한 構造的 諸要素를 면밀히 檢討해야 하겠다. 이것은 곧 우리의 社會 文化的 諸要素가 주어진 條件으로서 工業體系에 어떻게 受容되고 適應하며, 주어진 條件들이 어떻게 促進하며 또는 沮害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단순히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合理性에의 劃一的 判斷을 行使하지 않고 소위 遺傳된 社會文化的 要素 즉 傳統을 經濟發展에 促進的인 側面에서도 觀察하는 作業도 포함된다. 먼저 傳統의 概念을 취급하여 傳統에 대한 常識的 誤解를 해소하고, 機能主義的 分析模型의 限界性을 밝히고자 한다.

II. 傳 統

社會的 行爲의 分類를 M. Weber 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는 行爲의 志向樣式에 따라 合理的 行爲(價値合理的 行爲와 目的合理的 行爲)와 非合理的 行爲(傳統的 行爲와 感情的 行爲)로 分類하였다. 그에 依하면, 目的合理的 行爲는 “諸目的, 諸手段 그리고 副次的 諸結果를 모두 合理的으로 計算하고 比較하였을 때 分명한 個別的 諸目的의 한 體

(3) 後進社會社會學 또는 發展社會學의 試論的 論文이 近來에 發表된바 있다. 黃性模, 「後進社會社會學序說(試論)」, 『社會學論叢』 第1輯, 社會學研究會, 1964. 5. pp. 5-22. 金環東, 「發展社會學序說」, 『韓國社會學』 第二輯, 韓國社會學會, 1966. pp. 21-41. 後者は 發展社會學이 理論으로서 幼兒的 狀態에 있음을 지적해 주고 다음과 같이 發展을 잠정적으로 定義하고 있다. “發展이란 보다 바람직하다고 判斷하는 人間生活의 條件(또는 狹意로 社會의 狀態)을 向한 意識的 變動의 過程이다.” (p. 29). 前者는 社會를 綜合物로서 볼 것을 제외하고 “...또한 後進社會研究에 있어서 技術經濟的 價値以外에도 다른 價値面(歷史·文化·社會)도 같이 考察됨으로써 問題를 社會的 狀況統合度 變化度등과 같은 綜合物로서 把握하고 여기에서 對象地域의 特徵을 밝혀 낼 수 있고, 이 속에서 先進·後進을 가려내는 標準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p. 7)라고 말한다. 兩者는 모두 共通的으로 發展을 技術經濟的 狀態에만 局限시키지 않고 있다. 筆者는 여기서는 技術經濟的 狀態에만 大분히 戰略的으로 局限시켜 考察하고 있을 뿐이다.

系에 合理的으로 志向된 行爲이다.”⁽⁴⁾ 여기에는 目的에 대한 手段의 選擇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手段을 채택했을 때의 다른 結果의 豫見과 그것과 目的과의 關係에 대하여, 또한 相異한 可能한 目的들의 相對的 重要性에 대하여 合理的인 考慮를 한다.

價值合理的 行爲는 “어떤 倫理的 審美的 宗教的인 絶對價値에 대하여 意識的인 信念을 갖고서 價値 自體를 爲하여 그리고 그것의 外的인 成就에 相關치 않고, 絶對的 價値에 志向된 行爲이다.”⁽⁵⁾ 絶對的 價値에 志向되고 있다는 無限한 使命과 義務를 完遂코자 動機化된 行爲인 價值合理的 行爲는 目的合理的 行爲에 대하여 多樣한 形態의 關係를 가질 수 있다. 물론 選擇的이고 갈등적인 目的들과 結果들간의 選擇은 絶對的 目的을 考慮함으로써 決定될 수 있는데, 目的合理性의 立場에서 보면 絶對的 價値는 非合理的(Irrational)이라고 보는 것이며, 行爲가 絶對的 價値에 더 한층 志向될수록 非合理的인 것이다. 感情的 行爲는 “意味있게 志向된 行爲의 境界線위에 있는 것”으로서, “어떤 外的인 자극에 대한 非統制的 反應이다.”⁽⁶⁾ 또한 感情的으로 決定된 行爲가 情緒的 緊張을 意識的으로 解消시키려는 形態로 나타날 때는 昇華의 경우이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傳統的 行爲는 “오랜 實踐으로 習慣化된 行爲인데”, “反復的으로 해왔던대로 行爲를 이끌어 주는 習慣의 자극에 대한 거의 自動的인 反應인 것이다.”⁽⁷⁾ 習慣的으로 習慣化되어서 行하는 모든 日常的인 行爲가 이 形態의 行爲이다. 그런데 傳統的 行爲는 自意識의 程度에 따라서 價值合理性으로 化해 버릴 수 있다.

M. Weber가 “西歐의 合理主義 더구나 그중에도 近代의 西歐合理主義의 固有한 特質이 무엇인가를 認識하고 그 起源을 解明”하려고 할 때, “經濟的 合理主義는 合理的 技術이나 合理的 法律에도 依存하지만 그 生成期에 있어서는 特定型的 實用=合理的인 生活態度全般에 대한 人間의 能力과 氣質에도 依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生活態度가 精神的 類型의 障得로 因해 沮害되는 곳에서는 經濟上의 合理的 生活態度의 激甚한 內的 抵抗에 直面케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⁸⁾ 그가 資本主義의 合理的 營利追求와 合理的 勞動組織이라는 目的合理性을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라는 價值合理性으로 규명코자 한 것이고, 한편 近代社會를 目的合理性에서 특징지우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合理

(4) M.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s.) A.M. Henderson and T. Parsons. The Free Press, 1947. pp. 115, 117.

(5) *Ibid.* pp. 115, 116.

(6) *Ibid.* pp. 115, 116.

(7) *Ibid.* pp. 115, 116.

(8)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zuerst 1904—1905). (權世元, 姜命圭 共譯, pp. 21-22).

的 營利追求를 目的合理的이라고 할 때, 그것은 普遍妥當性의 原理가 支配하는 領域인 것이며, “그 機能은 異文化속에서도 目的合理的으로 機能할 수 있다.” “다만 그때 一般的으로 그것을 技術的으로 採擇할 수 있는 經濟社會 條件만 갖추어 있다면 언제나 可能한 일이다. 要約하면 資本主義의 目的合理性은 이제 ‘특히’ 프로테스탄트의인 것이 아니고 一般原理로서 取扱될 수 있다.”⁽⁹⁾ 여기서는 다만, 目的合理性이 어떤 價值合理性에 依하여 本質的 性格이 規定될 수 있다는 것과, 傳統이 自意識의 程度에 依하여 價值合理性으로 化할 수도 있으므로 傳統이 目的合理性을 유인할 價值形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合理的 營利追求와 合理的 勞動組織이라는 目的合理性이 普遍的 原理로서 채택되는 過程에서 制約的 作用을 하는 經濟社會的 條件에 傳統이라는 要素가 介入되고 있다는 점만 명심해 두면 足하다.

M. Weber는 資本主義의 目的合理性이 社會的으로 逆機能하는 現象조차⁽¹⁰⁾ 等閑視할 정도로 資本主義社會의 合理主義에 次증함으로써, 傳統의 概念이 後進國의 發展問題에 適用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Hoselitz는 經濟發展과 傳統은 必然的으로 對立되는 社會的 行爲의 側面이 아니라는 點을 確認코자 努力하면서, 傳統의 概念을 자세히 檢討하고 傳統主義(Traditionalism)와 區別하고 있다. 그의 概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Shils의 傳統主義的 志向行爲(Traditionally oriented action)의 概念을 받아들여서 定義하기를, 傳統主義的 志向行爲는 傳統的 規範을 自意識的으로 主張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그 規範의 傳統的 本質을 충분히 自覺하고 있으며 神聖스러운 紀元으로부터 傳統的으로 傳承되어 오므로써 그 規範의 長點이 있다고 主張하는 點이 있다.⁽¹¹⁾ 그러므로 神聖한 紀元과 妥當性을 갖고 있으므로 傳統主義的 志向行爲는 意識的으로 明白하게 宗教的 또는 政治的인 復古의 主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文化的 變動에 있어서는 傳統的 行爲(Traditionally oriented action)와 傳統主義的 行爲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그 어느 行爲를 主로 하고 있는 社會集團의 變動에 대한 反應도 兩者가 상당한 差異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떤 傳統的 規範이 神聖한 根源에 依하여 合理化되지 않은채 自

(9) 黃性模, 「막스 웨버 資本主義精神의 變位實態」.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4, p. 211.

(10) D. Riesman, E. Fromm, W. Mills 등의 現代社會診斷은 곧 20세기 工業社會에서 合理性의 社會的인 逆機能的 諸結果를 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問題意識이 東洋社會의 傳統的 社會關係의 良機能에 關心을 돌리게 하고 있다.

(11) B. F. Hoselitz. *op. cit.* p. 85.

意識으로 遵守되어 왔다면, 過去의 神聖한 根源에 의하여 傳承된다는 威嚴을 가진 傳統的 規範보다는 더욱 쉽게 變更되거나 廢棄될 수 있는 것이다. 前者는 社會變動에 直面하여 새롭게 適應되고 修正될 수 있는 것이다. 後者는 오히려 目的의 合理性이 假定되어 있는데, 이때의 目的은 傳統的 神聖한 根源에 의하여 提示된 命題인 것이며, 傳統的으로 決定된 目的이 意識으로 遵守되고 있는 體制에서는 明白히 定形되고 論理的으로 연관된 價値에 志向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그 目的達成을 爲한 手段이 合理的으로 決定되어 있다면 M. Weber의 意味대로 傳統主義의 行爲體系는 價値 및 目的 合理性의 兩面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Hoselitz는 傳統的으로 傳承된 行爲 즉 傳統志向的 行爲(Tradition-oriented behavior)는 自意識의 程度(Degree of self-consciousness), 形式化의 程度(Degree of formalistic sophistication), 또한 그러한 行爲에 부과되어 있는 標準의 重要度(Normative weight)의 基準에 따라 네가지 行爲類型으로 區分하였다.⁽¹²⁾

習慣(Habit; 傳統的으로 傳承된 習慣의 行爲)은 文化的으로 傳承되고 學習되어 自動的인 行爲를 보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人事하는 법과 같이 社會的으로 意味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行爲類型은 社會化過程에서 一次的으로 文化的으로 決定된 것이므로, 價値階位에서 차지하는 重要度때문이 아니라, 生産樣式이 變動하는 狀況에 相應하는 어떤 行爲形態에 대하여 生理的인 또는 社會的인 配置를 하는 意味에서 經濟發展에 重要性을 갖고 있다.⁽¹³⁾ 이것은 어떤 機械가 서서 作業하는데 適合한 것이고, 習慣의 行爲는 앉아서 作業하는 類型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生産性向上을 爲해서는 機械를 習慣的 行爲類型에 適合하도록 고쳐주는 것이 좋다는 式의 意味를 갖고 있다.

慣習(Usage); 傳統的 行爲形態중에는 世代間에 傳承되는 理由가, 그 行爲形態에 어떤 높은 價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規範的인 呼訴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生物學的 欲求에 合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慣性으로 거듭 反復되는데에 있는 것이

(12) *Ibid.* p. 87.

Habit; Not normative, Not self-conscious, Not formalized.

Usage; Normative, Not self-conscious, Not formalized.

Norm; Normative, Self-conscious, Not formalized.

Ideology; Normative, Self-conscious, Formalized.

여기서 Formalized action 과 Not-formalized action 의 區分은, 그 相異한 行爲形態에 붙어있는 窮極的 合理性(Ultimate rationality)의 程度에 關係되어 있다. 즉 非定形的 自意的 行爲는 過去로부터 行爲의 妥當性을 體系의 意圖의 行爲의 一部로서 形成시킬 必要가 없는 傳統的 規範에 根據하고 있다.

(13) *Ibid.* pp. 88-89. Sumner의 Folkways의 概念과 類似하지만 오히려 Sumner의 概念이 애매하다고 논하고 있다.(p. 90).

있는데, 그러한 傳統的 行爲가 여기에 屬한다.⁽¹⁴⁾ 그 實例는, 歐美工業社會의 近代的 組織形態를 設置한 여타 社會에서 실제로는 그 組織形態가 要求하는 行爲類型과는 判異한 傳統的 行爲를 타성적으로 행하는 現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慣習(Usage)에는 社會 構造나 價値와 연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經濟發展에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印度에서 事業活動에는 各界各層의 사람들을 接觸해도, 그외의 交際 餘暇活動에서는 同一한 카스트의 사람에게 限定하는 것이나, 日本의 初期工業化過程에서 封建的 社會構造下의 人的 依存關係가 存續하여 들어 간 것등의 實例가 注目되고 있다. Hoselitz 는 日本의 工業化初期에서의 傳統的 要素의 良의 機能을 좋은 例로 삼고 있다. 日本의 工業化初期에서 勞動人口가 過剩狀態였으나 이것을 歸屬的 基準에 의하여 채용함으로써 社會構造에 有利한 作用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日本의 經驗을 工業化的 한 模型으로 보는 것은, 日本의 工業化가 傳統的인 한 階層에서 主導되고 中小企業形態로 出發하여 工業勞動力이 所有主의 家族이나 親戚으로 構成되어 工業化가 社會構造에 미칠 충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工業化를 既存 傳統的 社會構造에 適合하게 하여 利用함으로써 工業化에 依한 變革에서 오는 傳統的 價値 및 社會構造의 파괴 즉 社會的 費用(Social cost)을 적게 희생케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父系的 父權의 構造樣態가 存續함으로써 社會構造를 安定하게 維持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小規模 生産單位組織과 擴大家族의 機能이 合致되는 點에서 日本工業化的 利點을 注目케 하는 것이다.⁽¹⁵⁾

規範(Norm); 傳統的으로 傳承된 規範은 自意識的 行爲의 規律(Rule of self-conscious action)인데, 이를 遵守치 않을 경우는 外的인 制裁가 加해진다.⁽¹⁶⁾ 傳統的 行爲중에서 이 傳統的으로 傳承된 規範이 重要的인데, 왜냐하면 傳統은 變動하는 條件에 適應하는 方式으로 變動되는데, 그렇다고 그 變動은 意圖적으로 追求되는 傳承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現在의 有用性때문에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過去性(Pastness)이라는 威嚴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그런 面에서 傳統이 이데올로기도 되고 傳統主義(Traditionalism)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傳統的 規範은 社會的 技術的 變動에 強力한 障礙도 될 수 있는 한편, 經濟發展으로 激甚한 社會分解의 過程에 있는 社會에는 重要的 安定的 機能을 遂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方向으로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인가는 단언하기 곤란하다. 오

(14) *Ibid.*, p. 91.

(15) MaCord, *The Springtime of Freedom: The Evolution of Developing Societies*, 1965. (李澤徽譯, pp. 81-89, 92-93).

(16) Hoselitz. *op. cit.* p. 97.

히려 그것은 그 社會가 지닌 全般的인 이데올로기 특히 이 이데올로기에 內包된 傳統主義의 程度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經濟發展에 미치는 傳統的 規範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傳統主義에 대한 理解가 필요하다.

傳統主義는 단순히 現在의 問題解決에 도움이 됨으로써 傳統的 規範을 受容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規範의 古典性 또는 神秘性 내지 이데올로기의 優越性이 아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傳統主義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 즉 傳統을 爲해서 傳統을 찬양하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어떤 社會나 사람들이 固有的으로 傳統主義라든지 어떤 宗教가 傳統主義的 價値와 態度를 必然的으로 보유하거나 권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傳統主義의 이데올로기는 社會나 社會集團이 克服키 困難한 심각한 危機에 當面하였을 때는 광범하게 대두될 수 있다. 이런 때는 安定되고 번영하였다고 본 過去에 대하여 회고적일 수 있고, 이것이 政治的인 傳統主義的 이데올로기로 發展되어 나올 수 있다. 「그리스」의 1860—1920 年代처럼, 「비잔틴」帝國의 榮光을 찾아 軍事力을 增大시켰을 때, 國民의 총력을 集結시킬 수는 있었으나 몇번의 外侵을 감행한 결과로, 經濟的 危機를 遺産으로 남겼던 것은, 傳統主義的 이데올로기가 經濟發展에 阻害的인 作用을 한 實例인 것이다. 요는 社會의 에너지를 現在와 未來보다도 過去에 둔 價値와 目的을 達成하는데 集中시켰을 때는 傳統主義는 經濟發展에 逆機能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角度에서 傳統的 이데올로기를 經濟發展에 有利하게 利用할 수는 있을 것이다. 傳統에 國民들을 쉽게 集中시킴으로써 傳統的 이데올로기의 部分을 “意圖的”으로 利用하여 進歩的인 政治的 經濟的 發展에 重要한 武器로 삼을 수 있는 것도 “計劃的 所産”일 수 있다.

Hoselitz는 傳統的 規範과 傳統主義的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區別하고 있다.

“The former is merely a single normative proposition which is presented usually in a new and somewhat modernized garb. The latter is a whole body of interrelated normative propositions which together not merely support a particular belief, but which constitute an entire system of beliefs and values.”⁽¹⁸⁾

Hoselitz는 위와 같이 傳統的 概念을 精密하게 整理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社會構造를 經濟變數와 연관시켜 分析하는 道具로서 T. Parsons의 類型變數(Pattern variables)를 利用코자 한다. 一般的인 行爲들을 이 類型變數로써 分析하고 그 行爲들중에서 經濟活動에 關係되는 行爲들을 골라 내면, 이것이 곧 經濟的 先進·後進 社會의 比較에 社會學

(17) *Ibid.*, p. 100.

(18) *Ibid.*, p. 110.

의 基礎가 된다는 것이다.⁽¹⁹⁾ 즉 類型變數의 각 쌍의 兩分極사이에 傳統이 擴散하는 程度에 따라서 經濟發展(또는 工業化 내지 近代化)의 程度가 밝혀 짐으로써 先後進國의 比較가 쉽사리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Hoselitz 는 T. Parsons 의 類型變數를 社會分析의 理想型(Ideal type)으로 利用하여 實際 社會行爲들을 이 理想型이 제시하는 社會體系에서 편차되는 程度를 추정하여 社會變動의 要素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²⁰⁾

Hoselitz 는 T. Parsons 의 5 쌍의 類型變數 중에서⁽²¹⁾ 특히 經濟行爲와(이것은 곧 1人當 實質所得을 增大시키는데 關係되는 것으로) 관련되고 있는 3 쌍을 검토하고 있다.⁽²²⁾ 그리하여, 첫째로 業績性(Achievement)과 歸屬性(Ascription)에 關係서는, 後進經濟에서는 經濟財貨의 취득을 爲한 規範으로서 業績에의 信任을 缺하고 있으며, 社會의 對象에 經濟的 價値가 內包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財貨의 分配가 獲得的 地位(Achieved status)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歸屬的 地位(Ascriptive status)에 의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先進經濟에서는 業績性이 經濟財貨의 취득의 특징적 規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後進經濟에서는 職業訓練의 効能的 體制가 결여되어 있다. 둘째로 普遍性(Universalism)과 特殊性(Particularism)에 關係서 보면, 先進經濟에서는 資源의 가장 合理的이고도 効率的인 配分の 原理에 따라 經濟的 役割의 分配가 普遍性에 支配的으로 依存하는데 비하여, 後進經

(19) B. F. Hoselitz,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The Free Press, 1960, p. 29.

(20) B. F. Hoselitz, "Main Concepts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Implications of Technical Change", in B. F. Hoselitz and W. E. Moore (ed.)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Unesco-Mouton, 1966, p. 16.

(21) T. Parsons 의 類型變數는 그의 著書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1951, pp. 58-67.

I. 充足 一規律의 딜렘마; 感情性(Affectivity)와 感情中和性(Affective Neutrality)

前者는 對象으로부터 直接的인 滿足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情緒的 滿足自體가 目的이므로 情緒的 關係를 말하며, 後者는 規律을 爲해 滿足을 연장하도록하는 規範型으로 目的을 爲한 手段의 有用性을 認知하므로 非情誼的 關係를 말한다.

II. 個人的 對 集合의 利害딜렘마; 個人志向性(Self-Orientation)과 集合志向性(Collectivity-Orientation). 前者는 上位體系보다는 下位體系를 爲해 즉 個人的 利益을 爲하여 行動할 것을 期待하는 規範型이며, 後者는 上位社會體系를 基準으로 하여 行動할 것을 期待하는 規範型이다.

III. 價値志向基準의 形態(types)의 選擇; 普遍性(Universalism)과 特殊性(Particularism)

이것은 內在의 超越에 關係된 價値志向性인데, 前者는 어떤 對象을 그 對象이 포함되는 一般의 基準에서 取扱하도록 規定하는 規範型이며, 後者는 對象을 特定の 集團에 있어서의 特定の 關係에 있는 位置에 따라 보는 것이다.

IV. 社會的 對象의 樣態(Modalities)의 選擇: 業績性(Achievement)과 歸屬性(Ascription).

前者는 對象을 成就 (Performance)의 複合體로 보도록 하는 規範型이요, 後者는 對象을 特質(Quality)의 複合體로 보도록 하는 規範型이다.

V. 對象에 대한 關心의 範圍; 限定性(Specificity)과 廣範性(Diffuseness).

前者는 對象에게 좁은 制限된 重要性밖에 認定하지 않도록 規定하는 것이고, 後者는 全人格의 無制限의 重要性을 認定하도록 規定하는 規範型이다.

(22) Hoselitz 의 前揭兩書에서 [1960(pp. 29-42)와 1966(pp. 16-19)]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M. J. Levey 의 近代化觀도 마찬가지다. 李海英, 「레비의 中國社會觀」,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pp. 600-602 참조.

濟에서는 特殊性(例컨대 카스트제도)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세제로, 限定性(Specificity)와 廣範性(Diffuseness)에 關해서 보면, 後進經濟에서는 經濟活動(業務)의 遂行이 典型的으로 廣範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分業의 程度와 生産性이 낮은 것이 原因도 되고 結果도 된다는 것이다. 專門化와 항상 세련화되는 分業은 役割의 限定的 配置原理의 發達을 要求하는 것이며, 이런 意味에서 限定性(또는 專門化)의 原理는 合理的 計劃의 所産이며, 經濟의 狀況에서 하나의 規範으로서 普遍성과 業績性的의 原理가 交合 適用된 所産이다. 後進經濟에서는 限定性的의 原理는 값싼 勞動力의 덕분에 여러 서비스部門에서 고도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Hoselitz 는 나머지 2쌍의 變數에 대하여서는 批判을 加하고 있다. 나머지 두쌍은 1人當 生産性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는 것과, 類型變數를 先後進國의 社會構造를 대조하는데 있어서는 나머지 두쌍은 修正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先進經濟의 構造의 特性으로서 또는 近代性으로서⁽²³⁾ 業績性, 普遍性, 限定性을, 그리고 後進經濟의 構造의 特性이나 前近代性으로서 歸屬性, 特殊性, 廣範性을 말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感情中和性和 個人志向性을 前者에, 感情性和 集合志向性을 後者에 歸屬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感情性和 感情中和性은 社會集團의 成員들간의 接觸의 程度를 記述하고 分類하는 式으로 構造的 關係를 보는데는 有用할는지 모르지만 1人當 生産性과의 關係에서 그것들을 分類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⁴⁾ 즉 經濟發展의 水準에 따라 類型化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考慮되어야 할 점이 있다. 資本主義的 또는 工業體系의 非人間的(非情誼的) 메카니즘이(그것은 合理性의 具現이지만) 人間의 組織과 生産性을 完全히 解決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 지적되어 人間的 要素를 考慮해야 한다는 組織社會學의 問題가 있는 한편, 이러한 現象에의 關心은 곧 K.D. Naegele의 말대로 工業社會의 巨大한 組織體內에서의 原初的 集團의 出現이 合理性의 Antithesis 로서 研究되어 辯證法的으로 發展되면 人間的 要素와 非人間的 關係의 綜合化가 期待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한편 組織體

(23) 近代性和 前近代性的의 二分法의 概念은 H. Maine(身分社會와 契約社會), H. Spencer(軍事型과 產業型), E. Durkheim(有機的 連帶와 機械的 連帶), F. Tönnies(Gemeinschaft 와 Gesellschaft), M. Weber(合理性和 傳統性) 등의 理想型的의 分類, 그리고 T. Parsons의 類型變數, C.P. Loomies와 J.A. Beagle의 農村性和 都市性, R. Linton의 歸屬性和 業績性등의 分析概念 등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高永復教授는 都市人에 대한 態度調査를 通하여 前近代의 態도와 近代의 態도를 判별코자 測定基準를 提呈으로 提示하였다. [高永復, 「都市人的 社會的 態度研究」, 『社會學論叢』 第1輯, pp. 59-82 및 「韓國人的 意識構造分析의 一試圖」,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pp. 407-430 참조]

(24) Hoselitz, (1960) *op. cit.*, p. 36.

(25) K. D. Naegele, T. Parsons, E. Skill, and E.R. Pitts, (eds) *Theories of Society, Foundations of Modern Sociological Theory*. The Free Press, 1961. Vol. II. p. 1220.

의 構成員이 이미 傳統的 關係에 의한 情誼的 關係로 結合되어 있다면 또한 그것이 韓國 社會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면, 効率의 生産과 情誼的 關係의 相互關係의 側面에서 그리고 合理的 組織의 非人間的 問題를 解決하는 側面에서 검토될 問題인 것이다.

個人志向性과 集合志向性의 變數도 단순히 先後進國의 特性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竝로 傳統社會에서는 選良(Elite)이 經濟財貨를 獨占하는 경우가 많으며, 巨大한 權力을 絶對的으로 가진 政治指導者는 그 社會의 經濟組織과 經濟法을 훌륭히 이 獨裁者의 個人志向的 目的에 봉사하도록 設定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經濟와 政治等이 家族(또는 親族)과 共同體에 分離되지 않고 결부되어 있는 傳統社會에서의 個人的 行爲가 家族과 共同體에 志向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集合志向性을 經濟的 後進國의 屬性으로 할 수 없다. 반면에 經濟的 先進國家는 極端的으로는 全體主義的 國家形態를 만들면서까지 經濟財貨를 集合志向的 關係로 維持하려고 하며, 또는 어느 程度로 公衆의 利益을 爲해서 機能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先進工業社會에서의 集合志向性은 生産機關의 巨大化와 高度의 專門化(細分化)의 調整을 必要로 하는데서 뚜렷하다. 利益集團들의 出現은 市場競爭領域에서 個人보다도 集團이 競爭하는 樣態로 바뀌어 놓고 있다.⁽²⁶⁾ 政治家는 그들의 役割이 個人志向을 떠나 集合性을 理想的이라고 하고 있으며, 社會保障制度는 平等의 集合의 表現이다. 이렇게 보면 T. Parsons의 個人志向性과 集合志向性의 區分은 古典的인 自由主義的 個人主義에 立脚한데서는 妥當할는지 모른다. 問題는 經濟發展도 이미 國家의 集合志向的 次元에서 提起되고 있는 만치, 政治的 指導者가 利己的인 個人志向性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Hoselitz는 “政治的 選良(Elite) 또는 다른 選良들은 經濟的 重要性을 가진 社會的 對象에 대하여 集合志向的 關係를 維持하도록 期待된다”⁽²⁷⁾고 말한다.

그리하여 Hoselitz는 類型變數를 利用함에 있어서 단순히 變數들의 社會構造的 現象만을 서술할 것이 아니라, 變數들간의 機能的 關係도 밝혀야 하며,⁽²⁸⁾ 또한 工業化過程에 있는

(26) 黃性模, 『社會思想史』, 民潮社 1964. 4. pp. 101, 103, 104, 107.

(27) Hoselitz., (1960) *op cit.*, p. 42.

(28) A. Pepelasis는 前掲書에서 類型變數를 組合하여 提示하고 있다. (pp. 174-176).

I. 普遍性—業績性(Universalistic-Achievement Pattern); 이 類型은 經濟發展에 대단히 강하게 寄與하는 要素의 結合으로서 프래그마티즘哲學이 基礎로된 美國社會를 그 例로 보아, 窮極的 目的狀態보다는 過程을 강조하고 變動되는 目的體系(Goal-system)內에서의 手段選擇과 特定目的 選擇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地位는 職業的 役割에 依存하고, 이 役割은 報償과 資源과 함께 開放市場에서의 實際的 또는 期待된 業績에 基盤하여 配置됨으로써 自由로운 社會的 移動이 可能하고 國家는 目的—達成(Goal-achievement)에 기여하는 道具로 된다.

II. 普遍性—歸屬性(Universalistic-Ascriptive Pattern); 어떤 한 理想的 狀態의 實現(물론 國家를 通하여)을 強調한다. 地位는 特殊한 業績보다도 強調된다.

社會에 經濟成長論을 適用할 때는 類型變數의 變動에 영향을 주는 制度的 메카니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類型變數를 經濟發展의 戰略의 道具로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社會의 行爲의 一般화된 水準에서 實質所得의 決定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Hoselitz는 傳統의 概念을 精密化시킴으로써 社會的 行爲에 대한 폭넓은 理解를 增大시켜 주고 있다. 傳統은 文化的 概念과 마찬가지로 社會的 및 歷史的으로 類型化되는 行爲인 것이고 그것이 傳承되는 過程에서 修正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므로 傳統을 不變的으로 固有된 形態로 또는 傳統은 어느 特定社會나 集團의 本來的인 것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어느 社會에서나 갖고 있는 行爲類型을 대부분 傳統이라는 側面에서 觀察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그는 傳統의 概念을 T. Parsons의 類型變數와 연관시킴으로써 類型變數의 兩極사이에 傳統이 散在하는 程度를 관찰하여 社會構造를 橫斷的으로 分析하여 한편으로는 經濟發展(1人當 實質所得의 向上)에 有用하게 寄與하는 構造的 要素를 發見해 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經濟發展과 社會構造의 要素와의 關係를 포함하는 어떤 水準에서 한 社會의 近代化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든 傳統이 經濟發展(工業化)에 逆機能만 하는 것이 아니고 良機能도 할 수 있다는 것과 傳統의 規範이 社會的 統合의 安定性에 寄與한다는 점에서, 한 社會의 傳統이 工業화된 社會의 文化的 內容을 規定해 주리라는 것이다. 分業 및 專門化(細分化)와 機械化를 基礎로 하고 있는 工業社會에서는 社會와 個人들의 相互依存性을 더욱 增大시켜 주고 있는 반면에, 그것이 有機的 連帶로서 機能하자면 社會의 部分들이나 細分된 社會的 行爲를 統合하는 價値가 共通되게 前提되지 않을 때는 아노미(Anomie)를 보여 줄 內在的 矛盾을 갖고 있으므로, (29)

Ⅲ. 特殊性—業績性(Particularistic-Achievement Pattern); 이것은 古代의 中國型이다. 社會構造는 親族, 地域共同體, 先祖와의 連結性, 位階의 關係의 秩序, 集合的 道德律에의 一次의 志向 등의 關係準據에 의하여 原初的으로 組織된다. 따라서 個人的 餘地는 없고 오직 權威主義的 集合主義的 對象만이 있다.

Ⅳ. 特殊性—歸屬性(Particularistic-Ascriptive Pattern.); 社會組織이 親族과 直接的인 共同體에만 限定된다. 業績은 評價되지 않으며 役割은 歸屬的으로 決定된다. 親族外에의 結社組織은 없으므로 職業的 體制도 分化되지 않는다.

따라서 Ⅲ과 Ⅳ의 類型이 支配的인 社會構造가 가장 經濟發展에 沮害的이다.

(29) W. E. Moore,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Social Order* (Rev. ed.). The Macmillan Company, 1951. pp. 638-645.

Moore는 工業社會에서 相互依存性이 곧 有機的 連帶(E. Durkheim의 概念)를 意味하지 않으므로, 工業體系의 自體性格(즉 分業)에서 올 수 있는 아노미(Anomie)의 危險性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克服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全體主義의 國家가 發生한다고 보며, 그러나 歷史的經驗은 이 全體主義의 國家도 工業社會의 安定性과 統合性을 確保하는 唯一한 길이라는 것을 證明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社會的 統合이라는 次元에서도 傳統이 價値合理性으로 機能할 수 있는 可能性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工業社會(특히 民主主義의 技術國家)에서도 社會의 統合의 役割을 담당하는 集團이 傳統社會와는 달리 새롭게 形成되고 있지만, 그 統合役割的 集團(勞動組合, 農協, 政黨, 婦人會 等)도 자체 利益集團으로서의 限界性이 있으며, 政府의 機能 이 擴大되더라도 마찬가지로인 까닭이다. 先進工業社會들이 產業主義(Industrialism)을 共通의 體系으로 갖고 있으나 工業體系(Industrial system)와 기타 社會體系와의 關係는 그 社會의 社會 文化的 內容에 따라서 相異한 社會體制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韓國이 갖고 있는 社會 文化的 內容(그것에 傳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이 工業體系와의 關係過程에서 앞으로의 韓國工業社會를 文化的으로 規定해 줄 것이라고 展望해 본다면 「傳統的으로 志向되어 있는 모든 行爲」를 體系의 體系으로 檢討해 볼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III. 機能主義的 模型

“이것은 대단히 有用한 形式的 分類이다. 그러나 한 集團의 價値體系가 그 集團成員들이 特殊主義 대신에 普遍主義的으로 된다는지 集合體 志向型보다 오히려 自我志向型이 된다는지 기타 등등이 된다고 陳述하는 것이나, 또는 그들이 보다 普遍主義的이라든가 보다 自我志向的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社會變動의 分析을 위하여 아주 有用한 道具를 提供하는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傳統的인 社會의 特徵은 集合體志向, 機能의 分散, 特殊主義 및 歸屬이요, 經濟成長이나 近代化가 일어나려던 一般的으로 그 社會는 좀더 自我志向的・機能的으로 特定的・普遍主義的 및 業績志向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러한 一般的 陳述은 비록 틀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極히 誤解하기 쉽거나 혹은 많은 情報을 傳達해 주기에는 너무 模糊하다. 傳統社會나 近代社會나 모두 以上の 兩者擇一的 選擇可能的 兩面에 있는 特質의 重要한 要素를 갖고 있다. 의미있는 變化란, 어떤 價値觀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계있는 領域이 넓어지고 다른 價値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좁아진다는 사실이다.”⁽³⁰⁾

Hagen 은 T. Parsons 의 類型變數를 發展論에 適用하는데 있어서의 制約點을 明白히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초위 T. Parsons 도 屬한다고 간주되는 機能主義者들이⁽³¹⁾ 제시하는 機能論의 變動模型은 흔히들 三段階型(The three-stage model)이라는 것이다. 즉 傳統的

(30) E.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1962. [金環東譯, 『經濟社會學』, p. 206]

(31) T. Parsons 의 構造・機能的 體系論에 있어서의 統合과 變動문제의 批判은 다음 論文에서 行해지고 있다. 李舜求, 「理念型的 手段性과 構造・機能論의 系譜」, 『韓國社會學』, 第2輯, pp. 54~71,

段階, 過渡社會, 및 先進工業段階이다. 變動過程은 Hagen 이 지적한대로 前近代的 變數를 가진 傳統社會로부터 近代的 變數를 가진 先進工業社會로 移行하는 것이고, 移行過程에서 傳統社會가 近代的 變數를 受容하여 適應하는 期間의 社會가 過渡期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模型의 假定은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傳統을 벗어나서 合理性을 갖는 社會로 옮겨야 한다는 後進社會의 發展論的 主張에서 흔히들 前提하는 것이다.

“……後進國의 近代化는 간단히 말하여 傳統社會로부터 近代社會로의 發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二重으로 異質的인 社會로의 變革을 뜻한다. 後進國이 指向하는 近代社會가 반드시 西歐의 그것과 同一하지 않고, 또한 同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傳統社會와 本質的으로 다른 社會일 것만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뿐만아니라, 近代化가 指向하는 近代社會의 概念은 傳統社會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한 것이 아니라,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 몰라도 基本的으로는 西歐의 그것을 導入하였거나 적어도 參酌한 것이다.

이와 같이 後進國의 近代化는 二重으로 異質的인 社會로의 發展을 뜻하며, 따라서 그것은 革命的이고 革新的인 作業이며, 巨大한 變革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過去와의 斷絶이요, 傳統社會의 崩壞와 破壞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未來로 向해야 할 것이다. 未來에 비추어서만 過去가 問題될 수 있을 것이며, 革新과 變革, 그리고 이로 因한 進歩가 다시 말하여 進歩思想이 우리의 信條가 되어야 할 것이다.”⁽³²⁾

機能主義的 理論은 結果만을 重視하고 “社會體制는 그 속에서 부분들이 全體의 存續(궁극에 가서는 全體의 擴張과 強化)에 必要한 機能들을 수행하는 實際的體制이며, 따라서 相互依存的이고 다소 完結하게 統合되고 있는 것”⁽³³⁾이라고 하기 때문에, 三段階論에서는 傳統社會(즉 前近代的 社會)들의 諸特性이나 先進工業社會의 諸特性으로 單純化시킨 概念을 構成하고 있다. 즉 傳統社會와 先進工業社會에 각각 齊一性(Uniformity)이 있다고 假定한 것이다. 이러한 齊一性의 假定이 “科學的 理論”은 未來를 예측해야 한다는데서 여러가지 非事實的인 幻想的 論理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實로 近代化以前의 社會들이 機能主義에서 假定하는 것 처럼 그렇게 同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文化的 多樣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G. Sjoberg 는 民俗社會(Folk Society)와 封建社會(Feudal society)를 區分하여 각각이 工業都市化에 當面하는 問題點을 提示하

(32) 閔錫泓, 「西歐의 近代化理念과 韓國」, 『韓國近代化의 理念과 方向』, 東國大學校, 1967, pp. 11-12.

(33) N. S. Timasheff, *Sociological Theory: its Nature and Growth* (Rev. ed.) 1957, (李萬甲 譯, 『社會學理論』, p. 332).

고 封建的 要素가 工業化의 過程에서 끈기있게 斷絶되지 않고 持續하면서 工業都市體制에 適應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34) '傳統'이라는 말에 靜態的 意味로만 보려는 立場은 (35) 이미 Hoselitz의 概念規定에서 단순히 靜態的이라고 할 수 없다는 點에서 批判되고 있지만, 오히려 傳統社會가 部族 또는 農業社會들의 多樣性이 있다는 것으로서 變動은 모든 社會의 本來的 性質인 것을 말해 주고 있는 以上, 機能主義理論이 단지 共通的인 機能的 特性에만 注意를 集中시켜 歷史의 時間性을 無視하는 誤謬를 犯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歷史의 時間性을 無視하는 誤謬는 또한 工業社會들이 靜態的이며 同質的이라는 假定에서도 연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假定은 工業社會의 一般化된 特性들을 現在 工業化중 에 있는 社會의 豫測된 終着地로서 使用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未來 역시 새롭게 創造되는 것이며 變動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에 수반되는 社會變動을 理念型的으로 分析하고 있는 N. J. Smelser는 자기의 理念型的 變動模型(물론 過渡期에 대한 變動機制에 관한 것이지만)이 實際에 있어서의 變異가 있을 수 있는 理由를, 前近代의 條件에 있어서의 變異, 變動에의 충동차이, 近代化를 向한 길에의 差異, 近代화된 前進段階에서의 差異, 그리고 近代化중에서의 意外的인 事件의 內容과 時間에 있어서 差異를 지적하고 있다. (36) 그러나 Smelser는 그러한 變異의 可能性을 지적하고 있지만, 역시 傳統-先進工業社會의 機能的 特性들이 代置하는 過程으로만 說明되고 있을 뿐이며, 各特性(또는 要素)들이 變動의 過程에서 相互作用하는 側面에 대하여 그리고 變動過程과 速度에 關하여 전혀 알려 주는 바가 적은 것이다.

産業社會의 變動에 關한 研究家들은 産業主義(Industrialism)와 産業資本主義와의 分離現象을 지적하고 工業體系(技術과 그 組織)를 工業社會의 普遍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제 工業社會가 資本主義社會만을 意味하지 않는다. 社會體制는 政治制度和 經濟制度처럼

(34) G. Sjöberg, "Folk and 'Feudal'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8, pp. 231-239, November 1952.

(35) Homans가 美國社會學大會의 學會長演說(1964년도)에서 機能主義를 批判한 內容을 韓完相氏가 소개한바 있다. [社會學的 理論에 대한 새로운 理解-構造-機能 主義에 대한 Homans의 批判을 中心으로-]. 『韓國社會學』第2輯, 1966. 韓國社會學會. pp. 164-169 참조]. 여기서 機能主義의 세가지 特性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로 社會分析의 原初的 單位를 規範 혹은 役割에 두고 있다. 그러나 役割이 發生한 原因이나, 주어진 어떤 규범과 役割이 어떻게 現在의 형태로 남아 있느냐하는 問題는 등한시된다. 둘째로, 役割이나 制度의 相互關聯(Interrelations)에 주로 關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靜態的으로 問題를 취급함으로써 變動問題를 소홀히하고 있다. 셋째로, 어떤 制度의 發生보다는 結果(Consequences)를 주로 취급하여 社會全體를 平衡狀態(Equilibrium)로 본다.

(36) N. J. Smelser, Mechanisms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in B. F. Hoselitz and W. E. Moore(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Unesco-Mouton, 1966. pp. 33-34.

럼 어떠한 價値에 志向되고 있더라도 工業社會가 共通的으로 갖고 있는 要素가 있다. W. E. Moore는 産業主義(Industrialism)에는 科學과 技術(Technology) 및 合理的 分業(Rational division of labor)이 基礎가 된다고 말하며, 資本主義에서 보여 주었던 諸經濟的 活動을 대부분 發展途上의 國家에서는 政府가 計劃的으로 遂行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⁷⁾ Dahrendorf도 K. Marx 死後의 工業社會를 分析하면서 産業主義와 資本主義와의 分離를 지적하고, 工業社會로서 變치 않고 갖고 있는 價値가 바로 合理性, 業績 및 平等이라는 것이다. “모든 社會는 制度, 集團, 役割의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道德으로서의 社會(Moral society)로서 思惟와 社會關係를 規定지우는 規範과 價値가 있다. 사실 지난 세기 동안에 價値는 前進되고 變動되지 않았으나 工業社會들의 制度的 構造는 많이 變動되고 있다.”⁽³⁸⁾ 그리하여 合理性은 經濟的 合理性(Economic rationalism)을 意味하는데, 이것은 “취득의 極大化를 志向한 意圖의 經濟活動의 價値”이며, 이 合理性은 M. Weber의 말대로 資本主義以前에 存在하였고 또 그 社會의 出現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資本主義社會 뿐만 아니라 工業社會들의 공통적 特徵이며, 더욱 나아가서 19세기말 부터는 “外的 工業 增大를 內的 增大로 轉換시키는” 소위 第2의 産業革命까지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現存 資源을 보다 合理的으로 組織化하는 것이었는데, “科學的 管理”의 出現이 곧 그것을 말한다. 生産組織의 巨大화로 새로운 所有形態를 要求하며 人間의 技能을 最大化하는 것으로서 組織體의 官僚制화와 그에 따르는 새로운 人的 資源(事務員, 經營者, 統計專門家等)을 要求하게 된 것이다.⁽³⁹⁾ 業績은 “工業社會에서 個人的 能力, 努力 및 成功에 따라 두는 重點”을⁽⁴⁰⁾ 意味하는데, 産業革命以後 人的·物的 資源의 效用化에 방해된다고 보는 歸屬的 基準을 世界的으로 除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社會의 移動이 活潑해 지고, 敎育制度가 점점 成長하여 工業社會에서의 役割配分의 主要機關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平等에 있어서는 法的 社會의 不平等은 個人的 業績에 의한 地位決定의 合理的 組織構造形成에 배치된다는 것이며,⁽⁴¹⁾ 産業革命以後 소위 市民權(Right of citizenship)의 擴大過程을 보였다는 것이다. 法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平等하다는 法的 市民權이나 또는 市民의 社會的 權利(Social right of citizenship)로서 文明에의 同等한 參與 그리고 文化産業(Culture industry)으로 社會的 差異의 社會的 水平化를 이룩하고자 하는 過程을 보여 주었을 뿐만

(37) W. E. Moore, (1951) *op. cit.*, pp. 425—427.

(38)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London, 1959, p. 67.

(39) *Ibid.*, p. 68.

(40) *Ibid.*, p. 68.

(41) *Ibid.*, p. 69.

아니라 工業生産組織內에서 소위 ‘産業市民의 副次的 體制(Secondary system of industrial citizenship)’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産業主義는 분명히 機能主義者에게 工業化의 論理(Logic of industrialization)가 있다는 確信을 주기에 足하였다. 그리하여 Kerr 은 工業化의 論理가 있다고 確信하고,⁽⁴³⁾ “未來는 原因이 되며 現在는 結果”⁽⁴⁴⁾ 라는 論理를 展開한다. 즉 先進工業社會의 諸 特性을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가 未來의 結果 즉 原因으로 삼고서 現在의 發展計劃過程을 樹立하는 結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omans 는 機能主義를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r is a theory functional that contains statements like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 *b*, and *c* is to maintain institutions *x*,” when all the statement means is that institution *x* does not appear in a social system unless *a*, *b*, and *c* do too, that *x* is a function of *a*, *b*, and,.....”⁽⁴⁵⁾ 따라서 W. E. Moore 가 지적한대로, “공통적이고 高度로 相互聯關된 原因들의 한 셋트(Set)는, 부과적인 多樣한 條件들과는 獨立되어, 공통적인 結果의 한 셋트를 產出한다”는⁽⁴⁶⁾ 論理의 단순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體制內의 要素들의 相互依存性을 注目하는 機能主義者들의 段階論은 단순히 相互聯關性을 諸要素에서 確認함으로써, 工業化는 生産技術과 組織의 變動以上을 意味한다든가 또는 工業化를 社會·文化的 條件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諸要素의 相關度가 어느 程度로 있는가 하는 點에서 關心의 限界를 設定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變動論은 한 因果의 秩序를 提供하는데 二利點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相關關係가 있다 없다고 하는데 有用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機能主義의 三段階模型은 非現實的 無時間的 均衡論의 幻想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로, 西歐의 産業革命以後의 工業化가 長久한 時間을 지나면서 産業主義라는 한 體系를 工業社會의 普遍的 特性으로 形成되어 나왔음에도 不拘하고, 한 體制의 諸要素가 變動過程에서 發生하는 原因과 그 時間 그리고 그 要素들의 相關關係가 時系列上에서 作用

(42) *Ibid.*, p. 61—65.

(43) C. Kerr, J.T. Dunlop, F. Harbison and C.A. My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4. 특히 第1章 The Logic of Industrialization 참조.

(44) C. Kerr, *Changing Social Structures*. in W.E. Moore and A.S. Feldman (Eds.) *Labor Commitment and Social Change in Developing Areas*.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60, p. 358.

(45) G. C. Homans, *Contemporary Theory in Sociology*, in R.E.L. Faris (Ed.)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Randmcnally & Company, 1964. p. 963.

(46) W. E. Moore, *Social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Faris (ed.) *op. cit.*, p. 884.

하는 範圍와 영향력에 대하여 충분한 說明을 해 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諸 要素나 諸 過程이 同時的이거나 併行한다든가 하는 程度로서 變動의 모든 樣相을 선명하게 說明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後進社會의 發展論에서는 機能的 特性的 相關關係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變數들간의 상관성을 인정하면서 일부학자와 정책수립자는 發展政策은 가능한 한 많은 변화의 요소들을 넣은 균형잡힌 것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닐·스멜저(Neil J. Smelser)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어느 요인들을 취해야 할까?…… 어느 勸告에 政策樹立者는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간에 統治엘리트들이 優先順位를 정해야 한다고 그는(Lucian W.Pye; 筆者) 주장한다.

학자들이 이런 많은 勸告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知的 手段을 발전시킬 그 행복스런 날이 올때까지는 政治指導者들은 그들의 사회에 적절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판단과 재능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要컨대 統治엘리트가 자기 사회내의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노련하게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솜씨가 아마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요인이 될지 모른다.”⁽⁴⁷⁾ 政策에 學者들이 제공하는 훌륭한 勸告는 例컨대, 文盲率의 低下와 平均教育期間의 延長, 高等教育修學者의 比率擴大등이 經濟發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여 文盲除去와 專門教育에 대한 機能을 강조하는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工業社會에서 “文盲과 教育水準의 歷史的 變動過程(Course)”을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고, “教育을 資本投資, 他變動의 前提條件, 또는 번영한 經濟가 提供하는 消費財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해결이 發展途上의 國家의 計劃이나 社會變動의 速度와 連鎖作用에 대한 理論的 關心에 實際的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는 政治(政策)와 學界에서 使用하는 概念的 模型간에 相互作用하는 進化過程의 結果에 대하여 實際的 情報를 얻지 않고는 해답이 不可能한 것이다.⁽⁴⁸⁾ 「人間形成」과 「人間改造」에 普遍的으로 有用한 教科書에서 韓國社會가 志向하는 產業社會의 人間像이 전혀 모색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點에서 더욱 우리에게 動態的 研究의 關心을 集中케 하는 것이다.⁽⁴⁹⁾

둘째로, 機能主義的 模型은 後進社會發展의 沮害要因을 「傳統社會」의 內在的인 構造에

(47) M. Weiner ed. *Modernization; The Dynamics of Growth*, Basic Books Inc, 1966. (車基璧 等譯 『近代化』, pp. 35-37).

(48) W.E. Moore (1964). *Ibid.*, p. 888.

(49) 金環東, 「教科書分析에 의한 韓國社會의 儒教價值觀 研究」,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pp. 333-368 및 「態度尺度에 의한 儒教價值觀의 測定」, 『韓國社會學』, 第1輯, pp. 3-24, 참조.

限定시키는 誤解를 받기 쉽다. Levy의 中國近代化에 대한 見解는 이점에서 明白하다.⁽⁵⁰⁾ P. M. Foster가 제시하는 變動에의 傳統的인 障礙要素들, (文化的, 社會的 및 心理學的의 諸要素)도 모두 傳統社會의 構造에 內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¹⁾ 물론 傳統社會의 內在的 構造要素에서 發展의 沮害的 要因을 發見코자 하는 것이 妥當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社會構造를 分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는 文化混合의 經驗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實로 現在 經濟發展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大部分의 後進國들은 2次大戰以後에 獨立한 新生國들이며 이들은 植民地 經驗을 뼈에 사무치도록 물려 받고 있는 것이며, 이 經驗이 새로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期間동안(또는 數世紀에 걸쳐서) 西洋이 끼친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떤 정도의 영향을 대부분의 세계가 받아 왔다는 환경의 重要性”을⁽⁵²⁾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 先進列強의 帝國主義政策이 後進社會에 미친 影響을 輕視하거나 無視한 나머지 政治的 主體性을 維持한 後進社會와, 植民地 혹은 先進國의 경제적 利害關係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準植民地에 있어서의 近代化理論 내지 그 政策의 差異點을 認定하지 않는에서…… 이러한 「로스토우」의 史觀은 傳統의 文化를 갖는 後進社會는 비록 그 自體內에 近代化를 沮止하는 制度的 落後性이란 內生的 要因은 가졌지만,…… 이 帝國主義植民列強이 이런 後進地域에 대해서는 正統的인 植民政策을 適用하여 近代化를 가로막고 天賦의 自由가 주어진 後進社會에 대해서는 西歐의 移植文化를 創造했던, 植民政策의 差異에서 오는 外生的 要因이 보다 強하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다.”⁽⁵³⁾ 機能論의 模型은 日帝時代의 韓國에 近代的인 學校와 工場이 設置되고 資本主義를 導入하고 組織體에 從事하는 有能한 機能的 知識人을 輩出하였다는 事實을 지적해 주거나, 또는 外部의 충격에 대한 民族主義的 自覺으로 近代化의 충동을 갖게 되었다는 說明을 해 주지만, 植民地를 수탈 착취하거나 工業化가 「不平等深化過程」이라는 理由를 說明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도 關心을 集中시키는 바 近代化(물론 工業化도)의 先行條件을 論함에 있어서 “帝國主義 列強이 만드시 跳躍의 先行條件造成을 樂觀케 할 만한 政策을 追求하지 않았다”는⁽⁵⁴⁾ 點을 等閑視하는 것이다.

(50) 李海英, *op. cit.*, pp. 585—608.

(51) G.M. Foster, *Traditional Culture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Harper & Row, 1962, Chapters 5, 6, and 7.

(52) W.E. Moore (1964). *op. cit.*, p. 884.

(53) 朴喜範, 「로스토우 史觀의 批判—近代化 問題를 中心으로—」, 『經濟論集』, 第Ⅴ卷 第1號,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1966, p. 9.

여기서 추가로 考慮되어야 할 문제로서 機能論的 立場에서 지적하는 經濟發展의 沮止要素로서의 植民地遺產인 有用한 人的 資源의 不連續性이 있다. P. M. Hauser는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新生國들은 政治的 行政的 指導者들 뿐만 아니라 工業·商業, 敎育 그리고 專門的技術的 分野등 광범한 經濟的 社會的 領域에서 적절히 훈련되고 經驗있는 指導者들을 喪失함으로써 經濟發展을 爲한 새로운 人的 資源의 創出이 當面課題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였다.⁽⁵⁵⁾ 그런데, 工業社會가 多元的인 機能社會라는 점에서 有用한 機能人을 必要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行爲는 M. Weber의 “프로테스탄트의 倫理”나 이제 그러한 信念의 機能을 代身하고 있다는 民族主義(Nationalism)에서 合理化되어야 한다면, 機能人은 經濟發展을 爲한 指導者로서 “近代化問題를 어떠한 態度에서 보는가 하는 知的 志向性”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이로써 近代化의 擔當勢力이 “社會階層勢力”으로서의 政治的 性格이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機能人으로서의 “機能的 知識分子”는 政體와는 關係없이 自己地位를 維持하려는 保守的 性格을 갖게 되는 것이고, “政治的 知識分子”는 價値創出의 役割意識으로 政體와는 항상 對立하는 갈등을 갖게 된다.⁽⁵⁶⁾ 이러한 問題의 解答은 곧 機能主義的 模型이 機能的 特性을 靜態的으로만 파악하는 以上으로 社會的 綜合性的 問題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機能主義的 模型은 經濟變動을 變動의 始初的 因子로 취급하여 因果關係의 分析을 시작하고 또한 經濟組織을 優位的인 變數로 排他的으로 強調하여 經濟와 社會組織의 他側面과의 相互作用을 과소평가한다. 여기에 機能主義的 均衡論의 당연한 논리로서 經濟와 社會組織의 他側面과의 關係를 先進工業社會 그대로 模型으로 設定하는 것이며, 이로써 극단적으로 後進社會의 近代化는 바로 “西歐化”라는 概念과 同一化되는 것이며 또한 例컨대 “美國”社會를 研究하는 것이 “社會”의 普遍的 原理를 研究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滿足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後進社會發展論에 機能主義的 模型이 寄與하는 限界性이 明白해 진다. 그 模型은 工業化와 社會構造의 變動에 관하여 오직 部分的인 一般化的 原理를 提供할 수 있다는 것과 社會構造를 橫斷的으로 分析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模型의 巨視性은 經濟發展이 가져오는 變更되는 生活條件에 主要한 社會制度와 組織이 適應하는 機制

(54) *Ibid.*, p. 7.

(55) Philip M. Hauser, “Some Cultur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Less Developed Areas.” in *Human Organization*, pp. 18, 78—84, Summer, *op. cit.*, 1959, pp. 78—79.

(56) 黃性模, 「近代化의 諸課題」, 『東亞文化』第3輯,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5, pp. 99—100.

(Mechanism)와 時系列과 速度 및 變移過程에 대하여 자세한 動態의인 情報를 提供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機能論이 定義하는 “社會”의 概念을 發展論에 有用한 概念으로 修正함이 要求된다. 즉 主要한 要素들과 相互關係들의 機能的 相互依存性과, 秩序있고 持續的인 하나의 均衡(Equilibrium)으로 특징지워진 體制(System)라는 社會의 概念에다, W.E. Moore와 Feldman은 緊張管理模型(Tension-management model)을 제의한다.⁽⁵⁷⁾ 즉 緊張은 모든 社會體制內에 常存하는 것이며, 社會는 設定된 類型的 秩序있는 繼續性뿐만 아니라 緊張管理와 變動을 통해서 存續한다는 것이다. 이 模型은 變動의 過程에 대하여 共通性과 形態뿐만 아니라 緊張管理와 未來의 變動에 대한 持續的인 樣態도 포함시킨다.⁽⁵⁸⁾

한 欲求充足에 대한 不安, 緊張, 葛藤, 좌절, 간섭을 일으키는 條件은 變動을 矛盾面에서 把握하고 分析하는 對象으로 된다. 生活의 새로운 物質的 條件에 우리의 制度가 適應 못하는 文化遲滯(Cultural lag)이진간에, 發展된 狀態라는 것에 設定된 意識構造로서의 經濟發展이 주어진 生産條件에서 計劃의으로 가장 效果의으로 國民所得을 높일 것인가 하는 技術遲滯(Technological lag)이진 간에, 後進으로부터 發展하려는 우리 社會가 國際關係에서의 經濟的 平等의 要求 및 國內에서의 生活의 向上과 政治的 主權維持라는 逆理的 狀況에 處해 있을수록 價値葛藤이 變動의 단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⁵⁹⁾ 改革도 葛藤의 하나인 것이다. 改革에서 追求되는 目的은, 보통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計劃도 葛藤的인 性質을 갖고 있는 것이다. 計劃은 當面한 葛藤을 科學的인 配慮로 試圖된 解決策인 것이다. 그렇다고 科學은 萬能의 神이 아니다. 오직 決定을 위한 資料를 提供할 뿐이며, 選擇을 決定해 주지는 않는다. 經濟發展은 「實驗室」의 統制變數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統制變數는 經濟的 變數이기도 하고 社會·文化的 變數이기도 하며, 그 어느 것이나 充足的으로 操作되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운 것들인 것이다.

IV. 產業主義

生産技術의 合理化인 產業主義는 하나의 下位社會體系로서 社會構造에 裝置되어 機能化할 때, 產業主義는 經濟的 條件과 社會·文化的 條件에 의하여 그 內容과 作用의 方向과

(57) W.E. Moore and A.S. Feldman,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ism: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Trans. fifth World Congr. Sociol.*, 1962. 2, pp. 151—169.

(58) W.E. Moore, (1964). *op. cit.*, p. 889.

(59) 文化遲滯에 關해서는, W.F. Ogburn, *Social Change*, 2nd ed., New York, 1950 및 D. Martindale, *Community, Character & Civilization*,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3. pp. 421—439. 技術遲滯에 대해서는, 黃性模 (1964. 5). *op. cit.*, pp. 18—19.

範圍가 規定되는 한편으로 다시 그 條件들을 變更시켜 나가기도 한다. 이것을 動態적으로 把握할 때 미래의 工業社會의 形態가 그 社會의 文化에 依하여 規定될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제 韓國의 產業主義와 社會·文化的 要素(특히 傳統的 要素)와의 關係를 經濟發展의 側面에서 몇가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韓國의 勞動組織形態에서 가장 특징적인 家族勞動力을 問題의 始發點으로 삼아 보자. “…… 우리나라에서는 總就業者中에서 雇傭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작으며 1966년에 그것은 33.3%에 不過하다. 이에 對하여 自營業主는 36.2%를 차지하고 있고 家族從事者는 30.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產業別로 보면 1966년에는 第1次產業에서는 家族從事者가 45.6%, 自營業主가 39.9%나 차지하고 있고 第2次產業에서는 雇傭者가 54.4%, 自營業主가 35.7%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第1次產業은 家族從事者·自營業主型이고 第2次產業은 雇傭者型이고 第3次產業은 雇傭者·自營業主型인 셈이다.”⁽⁶⁰⁾ 第2次產業에서 雇傭者型을 보여 주고 있지만, 製造業의 規模別로 보아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韓國產業銀行의 鑛工業센서스의 資料(1963)에 依하면, 小規模에서 91.9%, 中規模에서 7.9%, 大規模에서 1.0%로 되어 小企業體에서 家族勞動力(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를 合해서)이 支配的인 것이고, 이것은 第1 및 3次產業의 경우와 類似한 것이다. 그런데 統計資料上으로는 中 및 大企業體에서는 雇傭者型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企業體들이 私企業體인 경우는 「家族企業體」라는 特性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것은 企業體의 經營의 主要한 機能을 企業主와 그 家族員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⁶¹⁾ 企業體의 相當히 많은 部分의 構成員들이 企業主나 經營層과의 血緣의 關係나 地緣의 關係에 있는 者들로 되어 있다는⁽⁶²⁾ 事實에서 中 및 大企業體도 「家族勞動力」으로 構成되는 小企業體의 特性들처럼 家族企業體로서의 類似性을 보여 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規模의 擴大는 組織, 人間關係, 人間과 技術 내지 機械와의 關係, 資本등에서 많은 變異를 수반하겠지만).

이와 같이 構成上의 傳統的 關係(血緣性과 地緣性에 의한 結合)을 두고 단순히 族閥主義(Nepotism)나 緣故主義(Favoritism)가 支配한다고 斷定할 수만 있겠는가 하는 問題點이 提起된다. 이 族閥主義나 緣故主義는 經濟發展을 촉진시키는 價値나 規範의 側面뿐만 아

(60) 邊衡尹, 「韓國의 經濟成長 雇傭 및 賃金」, 『經濟論集』 第Ⅵ卷 第3號, 1967. 9,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pp. 7-8. 특히 3.3, 3.5, 3.6(1) 및 3.7表 참조.

(61) 新亞日報, 제 988호(1968. 7. 10), 「韓國財閥의 後繼者」 참조.

(62) 拙稿, 「企業體從事員의 合理的 시스템에의 適應評價」, 『經營論集』 第Ⅱ卷 第2號(1968. 8),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營研究所. p. 117. 그리고 本章의 言及은 위의 글이 根據한 筆者의 調査資料에 상당히 依據하고 또한 보충하였다.

나라 經濟發展이라는 時間的 過程에서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勞動力의 移動의 側面에서 보면, 傳統的 關係가 勞動力의 移動을 상당히 規制하고 있다. 機會에 대한 知識의 普及과 地域的 移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規範의 制度化가 傳統的 拘束으로부터 그리고 歸屬的 基準에 의한 役割 配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經濟發展에 有利하다고들 흔히 말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合理化方向으로 促進되어야 하는 것도 말할 나위가 없다. 韓國에서도 職業構成의 變化, 世代間 및 世代內의 社會的 移動 및 大都市人口集中으로서의 地域的 移動이 活潑한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勞動力移動이 원만한 程度로 勞動市場을 形成시켜 주지 못하므로, 移動의 機會에 대한 知識과 契機가 傳統的 關係에 있는 者를 通하는 機制(Mechanism)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勞動市場의 機制를 代身하는 영역이 크고 있다. 말하자면 傳統的 關係가 傳統的 拘束力으로서 移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移動의 契機와 機制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아직도 韓國社會의 成員들간의 關係가 그 樣態를 變化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傳統的 關係로 규정되는 영역이 아직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分別해야 할 점은 勞動力의 質的 側面에서 工業化에 稀소한 勞動力과 풍부한 勞動力이 있는데, 稀少한 勞動力이 傳統的 關係의 範圍內에서 획득되지 않을 때는 그 關係를 普遍性으로 轉換해 가고 있으며 公共機關(또는 企業體)이나 大規模 私企業體에서는 制度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반면에 풍부한 勞動力(대체로 單純肉體勞動의 水準의 勞動力)에서는 傳統的 關係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役割配分의 問題와 연관된다.

둘째로, 傳統的 關係에 의한 結合이 族閥·緣故主義로서 役割配分의 基準을 그대로 잡고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先進工業社會에서는 教育制度가 一次的으로 社會의 役割配分의 機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社會的 移動과 業績에 依한 地位(役割)決定의 基準을 前提하거나 연관되어 있다. 韓國에서는 有用하면서도 희귀한 勞動力(專門의 技術的 勞動力)에 있어서는 教育制度가 役割配分의 主要한 機關으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문제점은 풍부한 勞動力에 대해서는 教育制度의 合理的 考案이 根本的으로 제시되어 機能化되지 않을 경우에는 傳統的 關係에 依存하는 바가 더욱 크게 된다. 그러나 國家社會의 水準에서 作用하는 教育制度의 効果는 長期性을 띠우므로, 다급하게 必要한 희귀한 勞動力에 대해서는 企業體 자체에서 調達하는 方法을 찾게 된다.⁽⁶³⁾ 그 하나는 家族員이 많을 때는, 특

(63) 西南亞細亞地域에 있어서 家族企業體를 研究한 結果, 家族企業體가 必要한 有用한 人力을 自體 訓練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政府는 家族企業體를 구태어 憚안시킬 필요가 없다는 意見을 提示한 例가 있다. Burton Benedict, *Family Firm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24. No.1, Spring 1968, pp. 1-19.

히 아들의 경우에는, 國內의 大學이나 外國에 유학시켜 專門的 知識을 갖게하는 한편, 企業體內에서도 職責의 階位型에 따라 上向的으로 轉移시키는 동안에 訓練시켜 重要的 職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家族員의 數가 적거나 또는 企業體의 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家族員數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親戚 또는 親族으로 補強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勞動力에 대해서도, 技術의 變化가 甚할 경우에는 單純技能의 變化도 수반하므로, 社會의 水準에서 効能的인 制度 밑에서 치밀하게 그 變化에 相應하지 못할 경우에는 企業體에서 스스로 訓練시키는 方案을 갖게 된다. 要는 家族企業體는 工業勞動力(또는 近代的 勞動力)을 傳統的 關係에서 構成시키고 그 基盤위에서 有用한 勞動力을 生産하고 있는 것이며, 韓國社會의 教育制度가 技術發展에 相應하는 効能的인 機能化를 이룩하기까지는 상당한 期間동안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문제점은, 教育制度나 企業體內의 訓練에서 새로운 知識과 우수한 技術(적은 비용과 더 큰 신뢰성을 가진 技術)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勞動力에 合理的이며 技術的 志向을 갖게 하는데 얼마만치 빠른 時日에 效果를 보는가 하는데 있다. 따라서 外國技術의 借用이 一時的인 解決은 될 것 같지만 社會의 全般的 技術向上의 根本的인 解決이 되지 못한 것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企業體에 있어서 技術에 대해서도 「過激한 急進主義的 志向性」을 보이며 保守主義的인 것이 아니다.

셋째로, 工業化에의 壓力은 地位의 歸屬性이나 世襲主義를 固守하도록 그냥 두지 않고 있다. 地位決定을 歸屬的 基準에 둘 수 있는 限界가 축소되고 있다. 부족하고도 유용한 勞動力에 대해서는 普遍性을 適用하고 있다. 企業主의 아들이나 친족이라도 業績과 能力이 「經濟人」이나 「經營者」답게 갖추이지 않으면 重用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企業體從事者들은 대체로 經濟的 利益이 工業이나 工業과 關聯된 產業에서 相對的으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工業體系內에서 自己들의 經濟的 地位를 上昇시키자면 工業體系에서 要求되는 그리고 누진적으로 또는 發展的으로 要求되는 技能을 배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工業社會로 就業하는 편리한 契機를 傳統的 關係에 의한 紐帶에서 찾았다는 것에 못지 않게, 그 契機가 自己의 能力의 發展없이 는 현재의 經濟的 地位와 向上될 經濟的 地位를 끝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傳統的 關係에 의한 結合이 傳統的 農業社會構造의 解體로서 오는 混亂을 새로운 工業體系의 편리한 轉移로서 크게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工業社會內에서의 社會關係중에서 業績性에 의한 地位의 安全과 昇進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傳統的 關係에 의한 結合도 그 자체에서 正統性을 內包하는 것이 아니라 業績性에 의한 地位의 代置와 그것을 向한 競爭을 하

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失業者나 不完全就業者가 많아서 就業의 機會나 地位向上의 契機를 緣故關係에서 求하려는 壓力이 強하여 業績性에의 壓力과는 規範的 葛藤을 보여 주기도 한다. 企業體가 擴大되거나 專門化되어 傳統的 關係를 갖지 않는 者의 數와 役割이 重要하게 되면 家族企業體에서도 合理的 體系가 設定되고 行爲의 基準으로서 機能化되며 傳統的 關係에서 오는 行爲規範體系는 완전히 質的 轉換을 하게 된다. 비록 傳統的 關係에 있는 者들로 構成된 企業體라도 構成員의 行爲規制는 合理的인 體制에서 이루어진다. 家族企業體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關係가 家族間의 役割과는 엄연히 區分되는데서 再構成되는 것이다.

넷째로, 傳統的 關係에 의한 企業體構成은 人間關係論의인 側面에서 生産性에 良機能할 수 있다. Mayo 派의 Hawthorne 實驗以後 1940~1960 年代를 支配하는 勞動者像은 한 “集團成員”이라는 “社會的 人間”이었다. 人間은 安定, 所屬感, 認定과 같은 어떤 共有하는 社會的 結合을 希求하므로 人間의 結合보다도 더 강한 動機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企業體의 經營方針은 意思決定에 있어서 集團參與, 雇傭者의 오락과 教育計劃, 감독자와 經營者에 대한 人間關係의 訓練,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企業體印像에 대한 重要性, 勞動關係, 集團誘因의 諸方案으로 나갔던 것이다.⁽⁶⁴⁾ 따라서 Hawthorne 實驗以後의 課題는 非公式的 集團(Informal group)의 目的을 組織體(Formal organization)의 目的에 어떻게 同一化시키느냐에 있었고 거기서 도출된 問題가 “人間關係”라는 것이다. 經營者가 生産水準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作業場의 非公式的 集團成員인 勞動者들이 實際로 그 生産水準을 決定하고 있다는 놀라운 事實이 발견됨으로써, “經濟的 人間”으로 組織되는 利益追求의 集團도 그것이 生存維持하자면, 成員들의 忠誠(이것은 어디까지나 非合理的 要素인 것이지만)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者들이 勞動力的 非合理的 要素를 無視하는 것이 오히려 非合理的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人間은 非合理的 要素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事實을 無視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實로, Taylor가 想定한 “經濟的 人間”은 西歐의 産業革命을 遂行해본 人間으로 形像化된 것이며, 經濟成長이 外的인 擴張으로부터 內的인 充實化로 方向轉換을 할 때 組織體의 合理化方向에서 合理的인 經濟活動의 機關으로서의 個人에게 그 根柢에는 個人主義思想이 蘊藏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個人이 生産企業體內에서 相互依存의으로 勞動하게 되는데서 合理的 個人과는 다른 次元의 問題點 즉 集團의 動學이 순수한 經濟的 合理性의 側面에서 提起되는 것이었고, 個人主

(64) D. C. Miller and W. H. From, *Industrial Sociology*, (2nd ed.) 1964, pp. 645—684.

義的行爲體系와 文化는 集團體系的 維持와 紐帶感에 매우 克服키 어려운 性質의 問題를 提起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組織體는 個人간의 競爭的 活動을 광범한 限界속에서 制限하던 自由主義的 個人主義的 秩序에서만 組織되고 統制하는 志向에서는 集團과 個人이라는 兩側面의 調整으로서 個人的 公式的 組織體에의 同一感을 形成한다는 것은 극히 難事인 것이다.

共有하는 感情이나 價値는 既存의 社會文化的 要素에 의하여 規定될 뿐만 아니라 社會體制의 永續的 維持에도 基礎되는 것일진대, 韓國의 企業體構成員이 傳統的 關係에 依하여 結合되면, 그것은 合理的 個人主義에서의 再構成的 意味와는 달리 일단 共有하는 感情과 價値를 基礎로 할 素地를 傳統的인 規範속에서 前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實로 派閥主義가 緣故主義의 屬性이 아니라 人間의 社會的 關係가 密接한 接觸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지속되어 情誼의 關係를 이루게 되면 自然發生하는 것이라고 보면, 傳統的 關係로 構成된 企業體에서만 우려될 要素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作業場의 社會構造나 個人들과 企業體와의 關係에서 우리感情(We-feeling)이나 一體感이 形成될 수 있는 素地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傳統的 要素로서의 集合志向性은 工業體系에서 機能轉換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考慮되는 것은 共同體(Community)의 概念이 企業體에서 成立될 수 있는 가 하는 點이다. 韓國農村의 독특한 마을構造는 地域共同體로서 社會的 共同生活의 綜合的 構造의 한 形態인데, 勞動의 傳統的인 協力關係나 生活感情의 類似性이 특징적이라면, 이러한 要素가 傳統的 關係로 構成된 企業體에서 導入되어 再生되는 潛在力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⁶⁵⁾ 要는 工業體系에서의 技能에 立脚한 個人主義와 機能的 異質性을 傳統的 要素에 의한 集合志向性으로서 克服되고 統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섯째로, 父權的 温情主義에 대한 問題이다. 父權的 温情主義는 權威體系와 報償體系에서 논의될 수 있다. 韓國에서도 家父長的 權威가 身分社會의 傳統的 權威로 되어 있으며, 이 傳統的 權威를 아직도 價値的으로 受容하고 있음을 工業勞動力에서도 發見되고 있다.⁽⁶⁶⁾ 報償體系에서도 低賃金이나 甚한 賃金格差가 支配的이고 또한 能力이나 業績에 基

(65) 農村의 地域開發, 農業의 協業化, 産業의 立地的 條件에 따른 工場의 分散등의 問題에서 地域共同體가 한 次元이나 社會體系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企業共同體」라는 概念의 構成에 크게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여기서 精密化시킬 수 없다.

(66) 拙稿; *op. cit.*, 「權威構造 및 自律的 限界性」 참조.

準을 두는 賃金體系를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⁶⁷⁾ 傳統的 關係에 의한 勞資의 構成이 自由로운 契約의 基準에 實質的으로 依據하지 않고 있는 데서는, 勞動力의 就業의 機會는 企業主에 대한 個性의 人格的 結合과 從屬으로 理解되기 쉽고, 企業家は 就業의 機會를 勞動力에게 過剩勞動力狀態에서의 失業의 不安을 제거시켜 주는 惠澤(그것은 合理的으로 基準化되고 制度化된 것이 아닌 人格的인 것으로서)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企業家が 企業家로서의 社會的 役割 내지 使命으로서 就業의 機會를 擴大시켜 줌으로써 失業의 不安을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合理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底위에서 企業家들은 勞動力에 대하여 社會的인 平等과 機會의 條件을 滿足시켜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 이상으로 工業界에 있어서의 市民權의 擴大에 대하여 考慮하지 않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勞動에 대한 福祉向上的 配慮는 個別的으로 情實的 惠澤으로 베푸는 것이며 이것은 아버지의 또는 家長의 温情으로서, 근엄한 權威의 表現으로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이다. 政府에 의한 賃金政策이나 社會保障制度가 平等概念의 經濟秩序의 表現으로 機能하지 못하는 社會的 條件下에서는 勞動力에 대한 福祉向上은 父權의 温情主義에 期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葛藤의 價値側面은, 그 温情的 惠澤이 傳統的 價値로서 生氣있고 값어치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合理化되고 基準化되고 制度化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工業體系에서 父權의 温情의 慈惠로운 傳統的 規範이라도 市民權 또는 勞動者의 勞動 市民權의 擴大를 爲한 理念을 內包하여 發展시켜 制度化하는데서 社會的 合理化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勞動者들이 스스로 工業社會의 한 利益集團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考慮해야 되겠다. 勞動者와 企業家間에 傳統的 關係와 傳統的 權威로 從屬되고 있다는 것이 勞動組合의 未熟의 原因으로 보기도 한다. “에컨대 東洋的 倫理觀에서 나오는 勞動者의 使用者에 대한 지나친 温情主義的 個人的 忠誠心이나 愛着心이 勞動者로서의 團結心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라 하여⁽⁶⁸⁾ 派閥的 逆機能을 지적하기도 한다. 실로 父權의 温情主義는 企業家와 勞動者간의 對立的 關係를 形成시켜 주지 않는다. 흔히들 “우리는

(67) 邊衡尹, *op. cit.*, pp. 26-31. 및 韓國銀行, 『賃金基本調查報告』, 1968. 5.

여기서 첨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賃金の 年功制이다. 물론 能力給을 優位에 두면서도 年功給을 副次的으로 調節하여 發展시키면 다음과 같은 効果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能力과 業績에 의한 役割配分(地位決定)과 賃金策定을 하게 하는 한편, 年功, 從事期間등을 고려한 賃金體制는 急變的인 工業化에서 오는 失業의 不安을 제거시키는 安定的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成熟한 工業社會에서도 社會保障이 發達되어 失業者나 退職者에 經濟的 不安을 제거시켜 주지만 勞動으로부터의 疎外나 集團參與로부터의 疎外를 해결해 주는 契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8) 金潤燾, 『韓國의 勞動問題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p. 233.

家族과 같다” 또는 “家族분위기”라고 表現하는 것처럼 完全한 人格的 從屬關係에 의한 統合을 意味하는 것이며, 派閥性이 温情主義의 屬性일 수는 없다. 오히려 요는 韓國의 社會의 水準에서 勞動組合의 利益集團의 性格에 대한 情報를 企業家나 勞動者가 모두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要因인 것이다. 새로운 社會의 勢力으로서의 勞動者集團의 勞動運動을 對立的이고 파괴적이라고 보는데에 있는 것이다. 父權의 温情主義가 社會的 合理性에 規範的으로 適應되고 工業勞動力的 市民權이 確立되어 간다면, 처음부터 勞動者와 企業家와의 階級對立的 關係의 觀念이 생길 수 없을 것이며 相互間에 工業體系에 適應하는 葛藤을 調和있게 해결해 갈 수도 있을런지 모를 것이다. 그리하여 合法的 權威가 財產(生産手段의 所有)의 權力化 즉 身分的 支配를 제거하는 것이다. 父權의 温情主義는 權威體系의 側面에서는 끊임없이 合理的 合法的 權威關係로 合理化되어가야 하는 것이고, 報償體系의 側面에서는 温情의 制度的 表現으로 合理化되면서, 民主主義의 工業市民社會의 形成過程에서 檢討되고 수정될 課題인 것이다.

이제 끝으로, 家族企業體의 根本的인 問題點에 도달한 것 같다. 그것은 家族企業體의 集合志向性의 準據들에 관한 問題이다. 緣故主義와 族閥主義가 家族勞動者이나 傳統的 關係에 의한 勞動力的 結合에 의한 企業體(또는 企業家)의 屬性으로 간주될 때 利益追求의 利己的 個人志向性이 非難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企業家は 企業體의 規模를不拘하고 「許生員傳」의 主人公이 풍자적으로 致富해 본 것과 같이 「致富의 生理」를 慣習的으로 갖고 있는가? 韓國의 財閥들은 價値創出이 아니라 價値轉移로서 致富하는 것인가? 그리고 政治家들이 經濟政策에서 企業家들에게 價値轉移로서 致富하는 合法性을 提供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⁶⁹⁾ 經濟發展의 目的은 어디에서 合理化되어야 할 것이며 國民의 一體感이나 民族主義(Nationalism)가 그 合理化의 이데올로기로서 國民이나 國家에까지 集合志向性의 準據들이 되지 못하는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그 原因은 순전히 傳統的 價値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原因이 있거나 또는 다른 요인들과 複合된 것으로 있는가? 韓國經濟의 對外依存性이나 殖民地遺産 또는 韓半島의 分斷에 原因이 있는가?

韓國에서도 工業化에 의한 經濟發展過程에서 合理化過程(經濟的 合理性의 規範化)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經濟發展에 傳統的 要素를 計劃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社會的 條件도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의 目的이 族閥主義의 利害關係에서 實質的으로 規定될 때는,

(69) 그렇다고 본 典型的인 見解는 金成斗, 『財閥과 貧困』, 서울, 1965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별저 그것은 工業體系의 合理化라는 次元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政治秩序와 經濟政策의 次元에서 社會體制를 規定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目的은 發展의 成果分配의 次元에서 尙상 問題視되어야 하며 明確化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民主的 自由와 平等의 次元에서 經濟發展을 遂行하는 政治的 秩序와 經濟的 秩序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傳統的 價値가 工業化에 有用하게 利用되더라도 一部 集團의 利己的 個人志向에 利用될 수 없고 또한 名目的 價値의 劃一主義에서 올 수 있는 全體主義의 支配에 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政府)는 價値를 計劃하고 價値葛藤을 調整 克服하는 緊張管理의 機能을 擔當하는 役割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合理化는 주어진 條件에서 目的에 가장 效率的인 手段을 裝置하여 目的達成을 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어진 條件을 變更시켜 目的達成에 有利한 性質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制度設定(立法化)의 過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 條件들의 社會的 意味와 內容을 충분히 파악하는데서 制度變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勞動力의 傳統的 組織形態만을 試論적으로 취급했으나, 傳統的 行爲가 組織活動, 資本形成, 市場 및 交換過程에서 갖는 內容과 意味가 충분히 觀察되면, 經濟發展과 社會構造的 要素와의 關係는 社會變動의 時系列上에서 규명되리라고 期待되는 것이다. 그러면 產業主義의 새로운 形態도 展望되리라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專任講師